‘투 포트’ 흔들…광양항 ‘넘버 3’ 전락하나

상반기 119만TEU 처리…인천항과 격차 6만TEU 불과

항만공사 국감, 의원들 “예산 차별·하역장비 낙후 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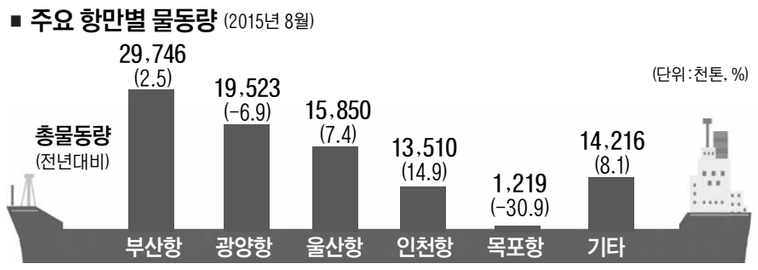
정부의 양항(투포트) 정책이 흔들리면서 광양항이 화물처리 능력 2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4개 항만공사 국감장에서는 ‘넘버 3’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광양항의 물동량 하락 및 인천항의 급신장,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불안, 체선율(滯船率=선박입항 지체율) 최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 말 주요 항만별 물동량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양항이 6.9%, 목포항은 30.9%가 감소한 반면 인천항(14.9%), 울산항(7.4%), 부산항(2.5%) 등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양항정책으로 한 때 부산항과 어깨를 나란히 할 희망을 품었던 광양항이 이제는 인천항의 물동량 급신장으로 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아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현황의 경우, 부산항은 956만7000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로 부동의 1위이며, 광양항은 119만1000TEU, 인천항은 113만1000TEU를 기록해 2위와 3위의 격차가 6만TEU에 불과하다.

예산 면에서도 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은 물론 울산항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예산이 부산항은 북항 포함 2348억원, 인천항은 1795억원, 울산항은 975억원인 데 반해 ‘투 포트’ 중 하나인 광양항은 525억원에 불과했다.

■ 주요 항만별 물동량 (2015년 8월)



같은 당 김승남(고흥·보성)의원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불안, 물동량 답보, 체선율 최고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말 현재 총부채 6710억원, 부채비율 55.5%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어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광양항 물동량도 2014년 234만TEU로 전년대비 2.3% 증가에 그쳐 답보상태에 있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광양항에도 24열 컨테이너 크레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마련하지 않으면 물동량 유출과 758억원의 부가가치 상실이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현재 광양항에 16기가 설치된 22열 크레인은 화물 7단, 높이 40m, 길이 63m 규모를 처리할 수 있지만, 24열 크레인은 화물 8단, 높이 43m, 길이 68m 규모의 대형을 처리할 수 있다. 24열 컨테이너는 부산항 47기를 갖추고 있는 반면, 광양항은 단 1기에 불과하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양=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9.32 (+16.51) ▲ 금리 (국고채 3년) 1.60% (+0.03)

▲ 코스닥 684.79 (+6.31) ▼ 환율 (USD) 1176.30원 (-9.00)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 산정기준 변경 추진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가격이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 차이 나지만 자동차세는 연간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C200과 쏘나타 2.0의 배기량이 각각 1991cc와 1999cc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해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되 경차 등은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개편 방향을 밝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았다.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초안의 3단계에서 최종안의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한도가 설정됐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cc당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하지만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배기량 1000cc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인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삼성 드럼세탁기 英 소비자 평가 최상위

2개 모델 1·3위 차지…유럽 4개국 휩쓸어

삼성전자의 드럼세탁기 신모델이 유럽 소비자 매거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유럽 가전시장에서는 소비자 매거진의 평가가 고객의 제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일 영국 소비자 매거진 ‘위치(Which)’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신제품인 WW6000 2개 모델(WW80J6410CX/WW80J6410CW)은 총 229개 모델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82점(100점 만점)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WW6000의 다른 2개 모델(WW90J6410CX/WW90J6410CW)은 81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WW6000 4개 모델은 모두 추천제품인 ‘베스트바이(Best Buy)’에 선정됐다.

위치의 소비자 평가에서는 ‘톱 10’에 삼성전자 모델이 무려 8개나 포함됐다.

공동 1위를 차지한 WW6000 모델은 항목별 평가에서 세탁력, 탈수성능 2개 부문에서 별 5개로 만점을 받았고 헹굼 성능, 사용 편리성은 별 4개를 받았다.

위치는 “면·합성섬유 모두 세탁력과 헹굼·탈수 성능, 사용 편리성이 뛰어나다”면서 “면 의류 세탁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렴하진 않지만 정말 굉장한 세탁기다. 정말 깨끗한 세탁을 원한다면 이 모델이 당신을 위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프랑스 소비자 매거진 ‘크슈아지르(QueChoisir)’의 드럼세탁기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세탁기는 유럽의 주요 8개 매거진 중 4곳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위치와 프랑스 크슈아지르, 이탈리아 알트로 컨슈모, 포르투갈 프로테스테 등이다. 올해 유럽 세탁기 시장 규모는 약 2400만대(120억달러)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 신입 95명 공채

5~15일 온라인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올 연말로 예정된 95명 규모의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과 전산(IT)직이며, 입사지원서는 10월 5~15일 채용사이트(http : //kodit.incruit.com)를 통해 자기소개서와 함께 받는다. 신보는 이번 공채의 특징을 ‘스펙초월·능력중심채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학성적과 학점 위주의 서류전형을 폐지, 최소 입사지원 충족요건(토익 500점 이상, B학점 이상)만 운영하고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신상정보 수집을 줄였다.

또 융합적 사고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종전의 전공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에 기반을 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필기시험을 대체한다.

실무·임원면접 외에 별도의 기초성장자질 검증 면접도 도입한다.

서류전형이 폐지되는 대신에 입사 지원자는 19일 3~5문항의 약술형 평가로 열리는 온라인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타고 오토캠핑 가요”

현대자동차는 오는 18일까지 현대자동차 보유 고객(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제11회 현대자동차 오토캠핑 서킷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통해 18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금호산업, 2200억 가스 공사 수주

인천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 3기 건설…실적 개선 기대

워크아웃중인 금호산업이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금호산업 건설사업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139억원 규모의 인천생산기지 3단계 저장탱크 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진흥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수주했으며 양사의 지분은 금호건설이 70%, 진흥건설이 30%다.

이 가운데 금호건설의 수주액은 총 2197억원으로 금호건설이 수주한 단일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이 공사는 인천신항에 위치한 가스공사 인천기지 내 20만㎘급 가스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은 총 50개월이며 다음달 8일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0월 준공한다.

금호산업은 이외에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군산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을 각각 1361억원과 1064억원에 수주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이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채권단 지분 인수 계약 체결로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데다 최근 잇달아 대형 공사를 수주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 펜션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슴(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구/벅스바)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120평, 전망최고/4면유리
모든 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7억
■ 매매 - 5억 8천만원(법인체 인수 가)
대출 - 3억 6000만원(이자 130만원)
임대 - 보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임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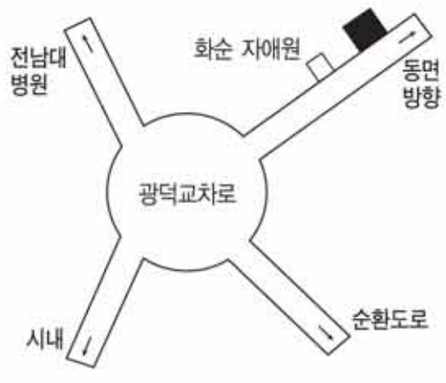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최고 수익률!

주인직매 H.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

경매 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 천 경 매
H.010-3505-5000